

北에 국수공장 '보시'

평불협 미주본부, 北 사리원에 '금강공장' 3월 가동

하루 6천그릇 생산
 매월 5천달러 지원
 조불련 위탁 운영

불교계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북한 국수공장 건설이 오는 3월 준공과 함께 국수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 상임부회장이 12월 29일 1만5천달러(약 2천5백만 원)를 조불련에 전달했다. 이밖에 조불련과 △탁아소, △학교 등 어린이에 우선 공급 △이민 합의에 관한 제2 제3의 공장설립 등을 합의했다. 평불협 중앙본부 회장 빌타스님(은혜사주지)은 "국수공장 가동은 남북한 불신해소 등 식량지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수를 생산하는 밀가루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IMF화와 등으로 침체된 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에 국수공장 건립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당면과제이다. 한편 현재 북한에는 96년 11월 미주 가톨릭계에서 평양에 처음 국수공장을 설립한 것을 비롯 타종교에서 설립한 8개의 국수공장이 가동 중이다. (김정은 기자)

장 장지현정사(前 진각종 LA심인당 주교)는 8일 서울 평북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방문,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호위원장과 국수공장설립 협의서에 공식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의서에 따르면 현재 황해도 사리원 지역에 건립이 진행 중인 국수공장의 명칭은 '금강 국수공장'으로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평북협 대표로 빌타 · 도안스님, 지현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과 동시에 공장을 가동, 1인 평균 10%씩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6천그릇의 국수를 생산할 예정이다. 평불협 미주본부는 지속적인 국수생산을 위해 매월 20톤 규모(약 5천달러)의 밀가루와 국수수출 조불련이 지정한 중국 업체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지현정사는 "공장운영은 조불련이나 조불련이 해당지역 행정위원회에 위탁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우선 공장설립 기금으로 12월 29일 1만5천달러(약 2천5백만 원)를 조불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불련과 △탁아소,



△가야산 골프장 건설저지 범국민대회가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골프장 안된다... 민족유산 지키자"

해인총림대책위등 74개 단체 9일 서울도심 결의대회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 소속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스님)등 74개 단체는 9일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스님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관철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고 김영삼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대국민 홍보전을 가졌다. 이와함께 일화(조계종 사회국장) 지원(전불련 지도위원)스님, 최일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 범국민대책위 대표단은 국민회의 정적위원장(위원장 김원길)을 방문하여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13일 해인총림대책위는 해인사 경내에서 국민회의 연동회 및 대구경북대책위등 지역 4개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건설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해인골프장이 전면백지화될 때까지 지지운동을 펴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지역 4개단체는 7일 연석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인 가야개발이 공사에 착수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감시활동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유호심 관청구의 제기과 신실된 사찰 환경보존조정의 적용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굴암 공기조정시설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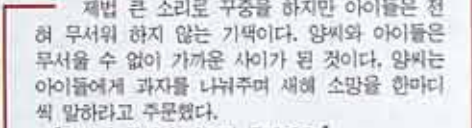
경주 석굴암의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공기조정시설이 새 것으로 교체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석굴암의 장기보존을 위해 석굴암 구조물

및 내부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기조정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월 17일 경 완료된다.

양봉목씨(안산시청 보건복지과)는 3일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첫 업무들을 행하며 퇴근 시간을 기뻐했다. 가야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출다. 한겨울 바닷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양씨는 경제난으로 인해 모두들 가슴을 담아 버려서 울겨울은 더욱 추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대부도 동지마을을 향해 차를 달리는 그의 가슴에는 어느새 온기가 불고있다. 동지마을의 서른명 고아들. 양씨는 그들의 해맑은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동지마을에 들어서기 무섭게 차를 향해 달려온 대북이 녀석은 어느새 양씨가 들고온 과자상자를 들고 방으로 달려가고 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양씨는 언제나 모기소리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날씨가 추운 탓인지 아이들은 큰 방에 모여 앉아 놀고있다. "이놈들 방하이라고 중얼 놀기나"



제법 큰 소리로 구중을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무서워 하지 않는 기쁨이다. 양씨와 아이들은 무서울 수 없어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다. 양씨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새해 소망을 한마디씩 말하라고 주문했다. "자정계 한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속구공과 농구공이 맞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향토만 갖고 놀거든요." 아, 양씨는 귀한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한다. 저 소박한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기에는 여러날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 한파 때문에 이곳 동지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 줄어든 것만 같아서다. 3년전 소년 소녀 가정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으며 동지마을과 친해온 양씨는 한달에 한번은 꼭 아이들을 찾아 온다. 어떤 때는 함께 잠을 자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함 이해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곤 잘 잘 알기 때문이다. <염태내 기자>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

문답으로 풀어본 禪 14면

관람료 사찰 수입 급감 23면

北 성불사 첫 참배기 24면

현대불교 '98 5大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간절한 불심과 바람(願)이 빚어낸 돌부처는 천년세월 동안 민심을 어루만지며 생활속의 귀의처로 자리해 왔습니다. 전국의 산재해 있는 돌부처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가려져 있는 돌부처의 수도 적지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재적 가치에 비해 보호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현재와 인제로 급속히 훼손, 마모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이대병원 신경정신과 박사·본지 논설위원)은 공동으로 전국에 산재한 이름모를 돌부처를 발굴, 역사성과 가치를 복원하는 성보지킴이 불사를 벌입니다. 또한 불상연구의 권위자인 정영호박사(한국고대미술연구소)가 학술적 고증을 하게 합니다. 주위에서 무심코 봐왔던 돌부처가 있다면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돌부처도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전국 사암의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보: 편집국 (02)722-4162>

"영상으로 보는 백두대간의 숨결"

'98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우리민족의 기상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두대간을 기행합니다. 원효·의상스님등 민족의 스승들이 대간의 속살에 사찰을 지은 뜻과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꾼 민족의 과제입니다. 매일 한차례 지면을 통해 선보이는 백두대간의 장중한 숨결을 느끼며 통일을 발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보는 불교문화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우리의 사고, 언어, 생활, 역사, 문화 등 모든 것에는 불교적 의미가 스며들어있습니다. 늘 접하고 있는 일상적인 상징물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가르침은 무엇인지 격주로 연재합니다. '98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불교 상징물의 문화적 가치와 가르침을 음미해 봅시다.

불화와 성화 비교 33장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372년이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784년입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이전에는 서양과 교류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불교종에는 지구 반대편의 서양문화와 공통되는 점이 너무나 많아 놀라움을 줍니다. 종교심을 최고로 고양시켜 가장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예술작품이라고 볼 때 이와같은 유사성은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학원스님(예천포교원장)이 정리한 '불화와 성화 비교 33장면'을 감상하며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문화체험학교'

차(茶), 방생, 문화, 불교역사 등 불교문화를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익히는 문화체험학교를 엽니다. 월 1회 불교문화가 숨쉬는 현장을 독자들과 함께 다녀온후 지면에 담습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연중행사로서 실시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호응에 힘입어 열리는 현대불교 문화체험학교를 불교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산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三寶淨財를 守護하는 三寶金庫 福田函!

최첨단기술로 제작되어 파손 및 도난을 방지하는 불교계 최초의 금고형 복전함! 미려한 외양과 견고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 금고 복전함의 특징 ●

- 신뢰성** 혁신적인 기술로 환원된 복전함으로 구성된 최정밀 제품으로써 믿을만한 제품입니다.
- 편리성** 스위치 하나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번호를 쉽게 자유자재로 1단위부터 3단위까지 번호를 바꿀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 안전성** 틀린 번호를 3회 이상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며 컴퓨터 기능이 마비되는 이중안전장치로 삼보정재를 지켜 드립니다.
- 견고성** 삼보금고의 원자재는 강도높은 강판으로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외부로부터 파손할 수가 없습니다.
- 디자인** 상 하 연화문양으로 조각 주조되어 외형을 장식하였으며 현대감과 불교 미술적 조화를 이루는 완벽하고 중후한 세련미를 자아냅니다.

▲모델 A104(전면) ▲후면

● 6개 모델 복전함 규격 ●

- 모델 A101**
· 높이 550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67Kg
· 가격 ₩880,000
- 모델 A102**
· 높이 605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71Kg
· 가격 ₩980,000
- 모델 A103**
· 높이 605
· 가로 605 × 세로 395
· 중량 79Kg
· 가격 ₩1,050,000
- 모델 A104**
· 높이 605
· 가로 760 × 세로 395
· 중량 83Kg
· 가격 ₩1,150,000
- 모델 A105**
· 높이 690
· 가로 655 × 세로 425
· 중량 95Kg
· 가격 ₩1,250,000
- 모델 A106**
· 높이 695
· 가로 910 × 세로 545
· 중량 110Kg
· 가격 ₩1,380,000

※선착순 시·도 대리점 모집중

불교미술관 **상단전화: (02)739-2991/733-4800** **FAX: (02)739-2992**
은행연락처: 농협 053-01-014174, 국민은행: 023-21-0288-067